

<규합한훤>을 통해 본 당대의 생활상

강문종(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서론
2. 이본 비교
 - 1) 서지적 특징
 - 2) 샘플 편지의 비교
3. 발신자와 수신자 현황을 통해 본 관계의 의미
4. 소자주(小字註)에 반영된 생활상
5. <閨柬>의 추가 샘플에 반영된 생활상
6.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규합한훤>의 이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적 특징을 밝히고 샘플 편지에 실린 내용을 검토하여 생활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해 1994년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규합한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규합한훤>은 1994년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전시회 “94년 한양여인의 향취전”에서 소개되면서 학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은 이 전시의 수요를 감안하여 1996년 12월 30일 『한양여인의 香趣展 資料集 「朝鮮朝女人의 삶과 생각」』을 출판하면서 <규합한훤> 원문을 영인하였다.¹⁾ 이후 김은성은 이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은성은 <규합한훤>에 실린 인간 샘플의 발·수신인, 내용, 편지를 주고받은 상황 등을 검토하여 이 언간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규명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어학적 검토라기보다는 국어의 생활사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²⁾ 박신혜는 옛한글문화학회에서 <규합한훤>의 두 이본인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이 편찬한 영인자료와 장혜자 소장본³⁾의 차이를 간단히 언급한 후 장혜자본에 추가된 목록을 제시하였고, 세플 몇

1)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한양여인의 香趣展 資料集 「朝鮮朝女人의 삶과 생각」』, 1996. 61~157쪽. 이하 ‘숙대본’으로 표기함.

2) 김은성, 「『閨閣寒暄』을 통해 본 格式的 便紙文化의 전통」, 『語文研究』 제32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개를 소개하기도 하였다.⁴⁾ 이후 조정아는 고봉 종가 소장 한글 간찰 101건 중 23%에 해당하는 23건이 바로 <규합한원>에 수록된 편지를 그대로 베낀 것임을 고증하였다. 그 결과 고봉 종가의 한글 간찰 중 상당수가 실제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범적인 형식에 대한 학습 및 편지쓰기 연습의 결과임을 밝혔다.⁵⁾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규합한원>의 전체적인 내용과 이 자료에 실린 샘플 간찰의 현황 및 송수신자 관계 등은 대략 밝혀졌다. 그러나 김은성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내용적 측면이나 샘플 편지에서 보이는 생활사적 측면에 대한 검토도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장혜자본인 경우 필사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이본의 비교를 통해 각 이본의 특징을 검토한 후 실재 내용 속에 나타난 생활사적 측면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 <규합한원>의 연구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본 비교

1) 서지적 특징

앞서 언급하 대로 <규합한원>의 이본은 현재 두 개가 소개되었다. 두 이본의 구체적인 이미지는 조정아(2021)에서 소개되었으므로 생략한다. 첫 번째가 숙대본이다. 이 이본은 현재 소장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인본 형태로 소개되었다. 한글 편지의 규식에 맞는 샘플 편지인 경우 대자(大字)로 구성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2행의 소자(小字)로 주를 달았으며, 총 42편의 샘플로 구성되었다. 표지가 영인되지 않아 표제는 파악하기 힘들고 내제는 ‘규합한원’으로 표기되었다. 아쉽게도 이 이본이 필사 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이본은 장혜자본이다. 이 이본은 표제가 ‘閨柬’으로 되어 있으며 ‘壬申菊月四日贍’이라는 필사기가 적혀 있다. 내제는 역시 <규합한원>으로 되어 있으며, 숙대본과 마찬가지로 샘플인 경우 대자로 되어 있고 소자주(小字註) 역시 동일한 형식으로 달려 있다. 샘플 편지의 내용은 숙대본과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마지막 샘플을 마무리하면서 표지의 필사기와는 조금 다르게 ‘壬申八月二十五日上午八時抄出’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혜자본은 임신년 8월 25일 오전 8시에 필사를 마무리하고, 9월 4일 표지가 제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필사기 직전의 샘플까지 숙대본과 동일하다.

그런데 김은성이 2018년 7월 19일 옛한글문화학회에서 설명했듯이⁶⁾ 필사기 이후에 25건

3) 이하 ‘장혜자본’으로 표기함.

4) 박신혜, 「閨閣寒暄」, 옛한글문화학회 세미나 발표문, 2018. 07. 19.

5) 조정아, 「고봉 기대승 종가 소장 한글간찰 연구: 『閨閣寒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 30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6) 샘플 편지의 제목과 발신자 및 수신자의 관계를 모두 발표문에서 밝혀 놓았다.

의 샘플 편지가 추가되었다. ‘壬申八月二十五日上午八時抄出’라는 필사기가 있다는 것은 당초 장혜자본의 필사자는 필사의 모본이 되었던 <규합한원>을 모두 필사한 후에 다시 다른 텍스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샘플 편지를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규합한원>인 경우 숙대본과 장혜자본의 필사기까지는 철저하게 여성의 편지쓰기에 필요한 샘플들로 구성되었다. 즉, 수신자가 남성이고 답장을 써야 할 경우 제목만 적어 놓고 남성의 편지 샘플은 생략하였다. 이에 비해 장혜자본에서 추가된 25편 가운데는 손자며느리가 시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시할아버지의 답장, 처조카(남자)가 고모부에게 보내는 편지, 외할아버지가 외손녀에게 보내는 편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편지, 부친이 친구에게 자식을 가르쳐 주기를 부탁하는 편지 등이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신자와 발신자가 모두 남성(외손자와 외할아버지)인 샘플 역시 등장한다.

특히 추가된 25편의 샘플을 분석해 보면 ‘임신(壬申)’과 연결시켜 장혜자본의 필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보낸 편지 샘플의 답장 형식을 제시한 샘플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공부는 서中 흠〃 道인호와 一작 가량이나 헛도이 노읍다가 일전의야 츄기 기학을 향앗스오며 지금 쇼위 신학문이라 향압는 것이 어학과 산술 밧괴는 모다 훈文을 ……7)

주목할 부분은 바로 ‘츄기 기학’과 ‘신학문’, ‘어학’, ‘산술’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손자가 봄학기과 가을학기로 운영되는 신식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과 ‘임신년’을 결합하면 장혜자본의 필사년도는 1932년이다. 그러므로 박혜자본은 1932년 8월 25일 이전부터 <규합한원> 전체를 필사하고 이날 오전 8시까지 25편의 샘플을 추가하여 필사를 마무리하였다. 즉, 박혜자본은 필사자가 두 종류의 편지 교본서를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이본을 <규합한원>으로 명명하기 보다는 표제인 <閩東>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샘플 편지의 비교

앞서 언급하였듯이 숙대본과 박혜자본 <규간> 중에 <규합한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샘플 편지의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 두 이본의 형성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시작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차이의 양상이 드러난다.

글월 밧즈와 탐〃 직삼 슬피오니 이 스이 춘일이 화창훈온디[색를 조차 말을 고칠지라] 존당 기후 만강훈오시고 피셔[사돈의 구괴 아니 계시면 이 줄은 업슬지라] 기운 평안훈오심 위하 든〃 이오며 이곳은 존후 무손훈오시고[구괴 아니 계시면 니르되 이곳은 겨오 지나 읍고] 즈식의 혼네 순성훈오니 다형훈온 둥 듯즈오미 며느리 극진 현속훈다오니 이곳 가운

7) 장혜자, 『한글서예총서18 역주 閩東』, 다운샘, 2015. 216~217쪽. 이하 이 자료에서 인용할 경우 인용문 뒤에 ‘박혜자본 ...쪽’으로 표시함.

이 열니온 듯 깃분 모습 측량치 못흐옵고 아름다운 모양을 시각 급히 보고져 간절흐오나⁸⁾

글월 밧즈와 탐〃 직습 슬피오니 이 식이 춘일 화창흐온디

존당 귀후 만강흐오시고 피셔[스돈의 구고 아니 계새면 이 줄은 읍쓸지라]

(장혜자본 20쪽)

위 두 예문은 두 이본의 동일 부분이다. 우선 표기의 차이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슬피오니’와 ‘슬피오니’처럼 모음의 표기에 차이가 날 정도이지 의미가 달라질 만큼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기의 차이인 경우 숙대본 106쪽에 있는 19번째 샘플부터는 장혜자본 94쪽에 있는 동일 샘플부터 한자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⁹⁾

두 번째는 소자주(小字註)의 유무가 등장한다. 위의 예문 중에 숙대본인 경우 ‘춘일이 화창흐온디’ 뒤에 ‘씨를 조차 말을 고칠지라’라는 소자주를 달아 봄 이외의 계절인 경우 그 계절에 맞는 표현을 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반면 장혜자본인 경우 이 부분에 소자주가 생략되어 있다. 소자주인 경우는 이 사례와는 반대로 장혜자본에는 등장하지만, 숙대본에는 없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어휘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이곳도 두풍이 동〃 잇스오니(숙대본 77쪽)’가 ‘이곳도 중〃 두풍이 잇스오니’에서 처럼 의미의 차이는 없으나 어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네 번째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숙대본 87쪽 13번째 샘플에서는 ‘무스 득달흐옵’으로 등장하지만 장혜자본 57쪽 동일 샘플에서는 ‘무스 당도흐옵’으로 나타난다.

다섯 번째는 특정 부분이 통째로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숙대본에서는 “**신상 평길흐가 시부오니 위힝 만〃 이울소이다 이곳은 전 모양이옵고 디소 각가이 두루 무고흐오니 슝이오며** 지식의 지힝은”로 등장하는데 장혜자본인 경우 이 부분을 “**신상 평길한가 시부오니 위힝 만〃 이로소이다. 지식의 지힝은**”으로 표기되면서 ‘**이곳은 전 모양이옵고 디소 각가이 두루 무고흐오니 슝이오며**’가 통째로 생략되는데 이러한 유형의 차이도 역시 곳곳에 보인다.

여섯 번째, 특히 숙대본 117쪽부터 129쪽까지 4편의 샘플과 129쪽부터 140쪽까지 샘플 4편이 장혜자본에서는 통째로 그 순서가 뒤바뀌어 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볼 때 두 이본간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숙대본의 모본이 되었던 이본계열과 장혜자본의 모본이 되었던 계열이 서로 다르게 이본군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계열이 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계열이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숙대본 계열이 장혜자본 계열보다는 좀 더 앞선 시기의 계열로 보인다. 장혜자본의 필사연도가 1932년이라는 비교적 후대의 시간이라는 정황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숙대

8)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한양여인의 香趣展 資料集 「朝鮮朝女人의 삶과 생각」』, 1966. 66~67쪽. 이하 이 이본을 인용할 때는 인용문 뒤에 ‘숙대본 ...쪽’을 표기함.

9) 숙대본 19번째 샘플 ‘십년’, ‘옥음’, ‘이목’ → 장혜자본 94쪽에서는 ‘十年’, ‘玉音’, ‘耳目’으로 표기된다. 이처럼 장혜자본의 한자 어휘 사용은 뒤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

본 소자주(小字註)가 장혜자본에서는 샘플의 내용으로 수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등장한다.

괴운 평안호오심 위하 든〃 이오며 이곳은 존후 무손호오시고[구괴 아니 계시면 니르되 이곳은 겨우 지나옵고] 조식의 혼네 순성호오니 <속대본 67쪽>

괴운 평안호오심 위하 만〃 이오며 이곳은 겨우 지나오며 조식의 혼네 순성호옵고 <장혜자본 22쪽>

위의 예문처럼 속대본에서 소자주를 통해 ‘이곳은 존후 무손호오시고’라는 부분을 시부모가 계시면 ‘이곳은 겨우 지나옵고’라고 고쳐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부분에서 장혜자본은 아래 예문의 밑줄그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속대본에서 제시한 소자주의 내용이 그대로 수용한 형태로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속대본이 상대적으로 장혜자본보다는 앞선 계열로 볼 수 있으며 원본에 가장 가까운 이본을 규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규합한훤>의 내용을 분석자료는 자료로는 장혜자본보다는 속대본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 발신자와 수신자 현황을 통해 본 관계의 의미

<규합한훤>에는 총 42개의 한글 편지 샘플이 실려 있다. 김은성과 조정아는 모두 35편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에서 38번~42번(5건)을 간찰로 규정하지 않았고, 2번인 경우 1번에 포함시키고 4번을 3번에 포함시켜 이해했기 때문이다. 38번~42번인 경우 비록 분량이 짧지만 간찰의 형식을 분명히 갖고 있으므로 독립된 샘플 편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2번과 4번인 경우 1번과 3번 간찰의 송수신 상황과 다른 상황을 설정하여 별도로 작성한 샘플이므로 이 역시 독립된 간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간찰 샘플	송신인	수신인	관계	비고
1	상쟁녀혼 지나고 신랑 도라갈 씨에 사돈의게 호는 편지]	신부모	신랑모	사돈	
2	삼일 우례로 썰을 보니면 스연을 고치되	신부모	신랑모	사돈	
3	답상장	신랑모	신부모	사돈	
4	삼일 우례를 힝하면 스연을 고치되	신랑모	신부모	사돈	
5	며나리 답[첫 문안편지 답장]	신랑모	신부	시모·며느리	于禮前
6	상장[사회 지HING 디리로 갈 씨에 사돈의게 호는 편지]	신부모	신랑모	사돈	
7	봉장[지HING 디리로 갈 디 사회의게 호는 편지]	신부모	신랑	장모사위	답장×
8	답상장[아들 지HING 보닐 씨 사돈의게 답장]	신랑모	신부모	사돈	
9	상장[세말에 하인 부리며 사돈의게 호는 편지]	신부모	신랑모	사돈	
10	답상장	신랑모	신부모	사돈	
11	상장[신년의 편지]	신부모	신랑모	사돈	답장×

번호	간찰 샘플	송신인	수신인	관계	비고
12	상장[쫄의 우레 씨에 사돈의게 하는 편지]	신부모	신랑모	사돈	
13	답상장[며느리 우레 후 사돈의게 답장]	신랑모	신부모	사돈	
14	어마님전 상술이[우레 후 친정에 상서]	신부	신부모	모녀	
15	쫄의게 [우레 후에 하인 보니며 하는 편지]	신부모	신부	모녀	
16	어미님 전 답상술이	신부모	신부	모녀	
17	아바님전 상술이	신부	신부부	부녀	답장×
18	오라바님전 상서	신부	오빠	남매	답장×
19	아오님 전 상장 [식누의게 하는 편지]	신부	신부의 시누이	시누이· 올케	
20	형님 전 답상서	신부 시누이	신부	시누이· 올케	
21	아바님 전 상술이[근친하여 본가에 온 후 구고씩 상서]	신부	시부	시부·며 느리	답장×
22	어마님 전 상술이	신부	시모	시모·며 느리	
23	며나리 보아라	시모	신부	시모·며 느리	
24	상서[존고 아니 계신디 식누의 성혼시키고 우레하여 보니는 씨 사당의게 하는 편지]	신부	시누이의 시모	사돈	
25	답상장	시누이의 시모	신부	사돈	
26	상장[쫄의 우레에 그 식모가 아니 거시면 그 맛동 셔의게 하는 편지]	신부모	딸의 큰 시누이	사돈	사택안사 돈부재
27	답상서	딸의 큰 시누이	신부모	사돈	
28	상정[쫄의 식도부모 회갑에 사돈의게 치하하는 편지]	신부모	신랑모	사돈	
29	답상장	신랑모	신부모	사돈	
30	상장[사돈의 회갑에 치하 편지]	신랑모	신부모	사돈	
31	답상장	신부모	신랑모	사돈	
32	소상[사돈이 구고 상수를 당한 디 쯤장]	신부모	신랑모	사돈	
33	답소상	신랑모	신부모	사돈	
34	소상[사돈이 친정부모 상수 당한 디 쯤장]	신랑모	신부모	사돈	
35	답상상[친정부모 상수에 답쯤장이며 편지를 소상이라 아니하고 장상이라 하는니라]	신부모	신랑모	사돈	
36	소상[사돈의 구고 소상과 대상의 하인 부리며 위문하는 편지]	신부모	신랑모	사돈	
37	답소상[소상 지난 후 사돈의게 답장]	신랑모	신부모	사돈	
38	대기 후 답장이면 둥간 스연을 고치되	-	-	사돈	
39	장스와 소디상에 부조하여 보낸 거슬 치스하는 말습	-	-	사돈	
40	잔치 씨에 보낸 거슬 치스하는 말습	-	-	사돈	
41	세시에 보낸 거슬 치스하는 말습	-	-	사돈	
42	무시에 주는 거슬 치스하는 말습	-	-	사돈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양식이 3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1

건, 시누이와 올케(신부) 사이 2건, 장모와 사위 1건, 신부와 친모 즉 모녀 사이의 양식 3건,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 즉 부녀 사이 1건, 남매 사이 1건 등을 제외한 40건이 모두 사돈 사이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 사돈 중에서도 대부분은 신부의 모친과 신랑의 모친 사이에 주고받는 편지의 양식이며, 송신자는 모두 여성으로 되어 있다. 수신자가 남성일 경우 남성이 보내는 답장은 모두 생략되어 있다. 특히 편지를 써야 하는 상황이 어머니와 딸의 이별로 설정되어 있다.

전통시대 모녀의 이별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딸의 혼인으로 발생한다. 이처럼 딸이 혼인할 경우 딸의 모친은 그동안 없었던 관계가 형성되는데 바로 딸이 시집간 사돈집과의 관계다. 따라서 이 자료의 제목에 보이듯 철저하게 여성의 편지쓰기를 위한 서식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딸을 시집보낸 여성이 사돈들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최대한 갖춰 간찰을 작성하기 위한 서식집으로 규정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특히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딸을 시집보낸 어머니가 딸과 사위를 비롯하여 사돈집으로 편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첫째, 혼례식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편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신부 집에서 혼례를 마치고 신랑이 돌아갈 때 신부의 모친이 딸의 시댁 사돈에게 보내는 편지와 와 우례(于禮)¹⁰를 치르기 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편지 역시 시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행위로 보인다.

둘째, 우례(于禮) 후 딸을 시집보낸 여성은 사돈 내외와 사위에게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셋째, 재행(再行)¹¹ 시에 역시 사위를 맞이하는 장모가 안사돈에게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넷째, 연말과 연초에 딸을 시집보낸 여성이 안사돈에게 안부를 묻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시집간 딸이 친정 식구들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상황과 주체가 제시되었다.

여섯째, 딸을 시집보낸 여성이 사돈집에 상(喪)이 났을 때 혹은 회갑 같이 축하할 일이 발생할 때 편지를 쓰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일곱째, 딸을 시집보낸 여성이 사돈집에 축하할 일이 발생할 때 각종 선물을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절기에 맞게 각종 물품을 보내거나 수시로 어떤 물건들을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상황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편지를 먼저 쓰는 주체가 딸을 시집보낸 여성이고 딸이 시집간 집에서는 답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먼저 예의를 차리는 주체가 딸을 가진 집안이다. 이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으로 들어가는 행위와 의식

11) 혼인 후 신랑이 처음으로 처가를 방문하는 행위.

4. 소자주(小字註)에 반영된 생활상

<규합한훤>에는 <증보연간독>처럼 간찰 샘플 내용에 생활상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 물론 11번 편지에서 “식회에 덕흠 업스오나 천흔 몸은 썩국 한 그럿 더 먹은 갑시 운지 정초 이후로 엇지 성 〃 치 못 스스로 괴롭스오이다”라는 언급이 등장하는데, 이는 새해가 되자 딸을 시집보낸 여성이 안사돈에게 쓰는 편지 내용의 앞부분이다.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떡국을 먹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정도로 생활상이 간략하게 제시되기도 하였다. 32번 편지 샘플인 경우는 딸을 시집보낸 여성이 사돈집 시부모의 상사(喪事)에 보내는 편지 샘플이다. 이 샘플의 내용 중에 다른 편지에서는 안사돈의 남편을 ‘밧사돈’이라는 용어로 부르지만, 상중(喪中)임을 감안하여 ‘밧사돈’이라는 용어 대신 ‘밧상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당대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샘플 내용 중에 이러한 전통시대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어휘를 설명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주(註)가 곳곳에 달려 있는데, 대부분 두 행으로 이루어졌으나 경우에 따라서 길게 서술된 경우도 보인다. 이렇게 주의 형태로 추가된 정보에서 역시 전통시대의 생활상이 어느 정도 추정되기도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소자주	비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솔호오서: 사돈의 구고가 아니 계시면 봉솔이라 아니호고 거느리오 셔라 흘지라 - 존후 대손치 아니시고: 구괴 아니 계시면 니르되 이곳은 대병 업습고 - 밧사돈긔셔논: 밧사돈이 아니 오시고 다르 니가 왔시면 손님이라 호느니라 - 만일 사돈의 연세가 십년 이상이면 스연을 더 존경호야 괴운 평안이라 아니호고 테절 평녕이라 호며 십오년 이상이면 더욱 존경호야 글월이라 아니호고 하장이라 호며 그후 안녕이라 테후 만안이라 호며 이곳이라 사돈이라 호미 미안호니 사하라 호미 조흘 듯호며 쫘의 식도모와 며느리 친정 도모와 식미의 존고와 식동싱의 장모의게논 그 연세가 비록 놓지 아니호여도 다 스스로 사하심이라 닐코고 편지논 상셔라 하셔라 호며 스연을 극진 존경호느니라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일이 화창호온디: 씨를 조차 말을 고칠지라 - 존당 그후 만강호오시고 뵈셔: 사돈의 구괴 아니 계시면 이 줄은 업슬지라 - 이곳은 존후 무손호오시고: 구괴 아니 계시면 니르되 이곳은 겨오 지나습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한의: 시월 치위논 초한이오 동지들은 지한이오 셋들은 납한이오 쯤 시월은 양월이라 호고 동지들은 지월이라 호고 셋들은 납월이라 호되 어른씩논 그러케 쓰지 못호고 본돌 일흠으로 쓰며 놀도 초일 〃 이라 십일 〃 이라 아니호고 초하로놀이라 열하로놀이라 호느니라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한은 봄 치위라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믹추 일긔 아릅답스온디: 스월을 믹추라 믹냥이라 호느니라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쫘의게 사회 말을 호라면 성을 닐코라 아모 셔방이라 호고 나종 벼슬호면 아모 성 아모 벼슬이라 호며 쫘이 친정 사릅의게 남편을 말 	

	허라면 쏘흔 그리 허느니라	
16	- 즌안을 뵈옵는 듯: 어미 얼굴을 즌안이라 허느니라	
20	- 형님 니외분 테절 만안허오시며 아우들과 아모: 족하의 일흠이라	
27	- 더욱 감송허온 바 추량의: 칠월은 초추라 신량이라 허고 팔월은 추량이라 고추라 허고 구월은 심추라 상한이라 허느니라	
36	- 소귀 격일허오시니: 대상의논 대귀 격일이라 허고 이하 스연은 7치 흘지라	
40	- 혼인과 우례면 경연이라 아니허고 길스라 흘지라	大字
42	- 편지 년 월 밝기 짜로 쓰기도 허고 원쪽에 말허기도 허느니라	大字

위의 표에서 1번 편지에 등장하는 소자주(小字註)이다. ‘봉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느리오셔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사돈의 시부모가 모두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 당대의 삶을 추정할 수 있다. 이하 예문에서도 유사한 문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5번 샘플인 경우 현재 장모가 사위를 부르는 ‘성씨+서방’호칭의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전통시대에는 사위를 비롯하여 시집간 딸이 친정 식구를 부를 때 벼슬을 하고 있을 경우 즉 관직에 나갔을 때에는 ‘성씨+관직명’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위의 성씨가 김이고 한성부윤의 벼슬을 하고 있다면 장모는 사위를 부를 때 ‘김부윤’이라 칭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곳곳에 달려 있는 주(註)들은 <규합한훤>에 들어 있는 각종 어휘 관련 정보들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는 전통시대 언어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閩東>의 추가 샘플에 반영된 생활상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규합한훤>은 편지쓰기의 샘플을 제시하면서 대부분 호칭부터 예의를 갖춰야 할 문장 등을 유형화시켜 제시한 서식집이다. 따라서 그 내용 속에 다양한 생활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1932년 필사된 장혜자본에 추가된 25편의 편지 샘플에는 당대의 생활상이 나름대로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가 까치가 길조라는 인식이다.

흔히 까마귀와 까치를 비교하여 흉조와 길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까마귀인 경우 색깔과 소리에서 오는 불편함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춘향전>에서 춘향이 옥중에 갇혔을 때 이미 저승사자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까치 길조라는 기록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는 1966년에 발표된 김동리의 <까치소리>라는 작품에서 반가운 손님을 불러온다는 길조의 의미로 등장한다.

<閩東>은 그보다 매우 이른 시기에 이미 까치를 길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로부터 까치의 영특흔 말을 드렸스은고로 몇칠을 두 썬 압히 나무의 쫓치 쇼리가 이승이

지저귀압기로 후시 반가운 소식을 드르을까 하여 훗날 가는 기력이를 눈이 쓰러지도록 바라
옵드니<장혜자본 186쪽>

이 예문은 ‘안희가 맞게 잇는 지아비의게’라는 제목의 샘플 편지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 샘플의 저자 혹은 필사자는 첫 문장으로 까치가 매우 오래전부터 영특한 동물로 알려졌음을 강조할 만큼 이에 대한 신뢰가 크다. ‘예로부터’라는 어휘는 이미 문화 속에 그 의미가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내는 이상하게 까치가 몇 일 동안 뜰 앞에 있는 나무에서 계속 울자 ‘후시 반가운 소식을 들을까’하여 큰 기대를 거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남편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과 길조로서의 까치의 의미가 잘 어울리는 내용이다. 결국 편지의 주인공은 “누가 이르기를 싹치가 오는 일을 미리 안다 흐로룻가?”라는 독백으로 아무 소식이 없는 남편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샘플 편지 속의 주인공은 예로부터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갖다 준다는 길조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샘플 편지는 1932년 이전부터 까치를 길조로 여겼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신식 교육의 현장을 느낄 수 있다.

서원이나 향교 혹은 서당에서 전통시대의 한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갖춰진 학교에서 신식 교육을 받는 모습이 등장한다. 물론 교육사 분야에서 이에 대한 정리는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에게 보낸 외손자의 편지는 그 현장이 보다 실감나게 다가온다.

선님께서도 제절이 못지 아니시오니 伏膺 만〳이압느니다 공부는 서中 흙〳도인호와 一
삭 가량이나 헛도이 노읍다가 일전의야 츄기 기학을 ㅎ얏스오며 지금 쇼위 신학문이라 ㅎ압
는 것이 어학과 산술 ㅂ긔는 모다 ㅎ文을 의최ㅎ읍는 터인인디 外손은 지쵸가 업스와 모든
과정의 힘은 쓰오나 효력이 적스오니 답〳ㅎ오니다 이곳이 본리 변화치 아니ㅎ읍고 사람 마
다 학문 힘쓰난 고로 그 풍속이 아람답스오니 가위 文明의 시골이라 <장혜자본 216~217>

위의 예문은 더운 여름날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위싱’ 분야와 ‘공부’ 분야를 언급하였고, 이에 대한 당부 역시 잊지 않았다. 그리고 외조부는 “孔子 글아스디 속의 밝은 것을 감추면 검은 것이 ㅂ긔로 ㅂ긔친다 ㅎ시니....”라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며 친구를 사귀는 처세술을 편지로 전해주고 있다. 전통시대의 지식 구조로 외손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손자가 보낸 편지의 샘플은 전혀 다른 언어들이 등장한다. ‘츄기 기학’, ‘신학문’, ‘어학’, ‘산술’ 등이다. 사서삼경(四書三經) 혹은 자치통감(資治通鑑) 등과 같은 전통시대 경사자집(經史子集)의 문헌 혹은 과목 대신 언어학과 수학이 등장한다. 신식 교육제도의 유입으로 급변했던 당대의 교육 현장을 조금은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셋째, 여성들 사이에 통용되는 다양한 호칭이 등장한다.

1932년을 전후한 시기 편지를 쓸 정도의 여성들이라면 아무리 사대부 여성의 전통적 이미

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신여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앞에서 다뤘던 신식 교육의 현상이 편지 샘플에 활용될 정도의 시대적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역시 시대를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추가된 25편의 편지 샘플에서는 여성 사이에서는 다소 낮은 호칭들이 등장한다.

‘출가혼 형이 집의 잇는 녀동싱의게’라는 제목의 샘플이다. 여기서 ‘형’은 샘플 편지에 등장하는 친정 여동생의 ‘언니’이다. 그리고 이 편지의 첫 문장이 ‘우리 형제 잠시를 썬지 아니헝다가.....’로 시작된다. 우리가 흔히 자매로 알고 있는 관계를 ‘형제’로 부르고 있다. 이 편지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통용되고 있다. “우리 형제 반가이 만나 손을 잡고 그동안 그리든 회포를 푸러보깃는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편지에 대한 여동생의 답장에서 역시 유사하게 표현된다. 샘플 편지의 제목 자체가 ‘형님전 승답서’이다. 그리고 내용 중에 “우리 형님은 한 번 가신 후로 三四년이 되옵도록 오시지 못헝오시니”, “우리 형데갓치...” 등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 샘플 편지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샘플이 ‘형님전 상서’인데 소자주(小字註)로 ‘출가혼 식누위가 오라비턱의게’로 되어 있다. 즉 오빠의 아내를 의미하는 ‘올케’라는 용어는 이 편지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 의미로 ‘오라비턱’이 등장한다. 그리고 오빠 부부를 ‘형님 너외분’으로 칭한다. 그러면서도 샘플 편지의 발신자인 여성은 자신을 수신자의 ‘미제’로 칭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를 몰라서 혹은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빠’를 대신하여 ‘형님’이라는 용어는 낯설다.

5. 결론

참고문헌은 각주 참고.